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예배 후 목자모임이 4시 30분에 시나이룸에서 있습니다.
4. 다하나 캠프 싸인업을 받습니다. 부분 참석도 가능합니다.
 - 일시 : 2026년 5월 30일(토)- 31일(주일)
 - 장소 : Good Earth Village
5. 다음 주일은 담임목사님 휴가로 이유리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6. Little Bit Better, 로컬 공원 쓰레기 줍기 행사가 4월 26일(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Dr. Martin Luther King Jr. Park 입니다.
7.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14일 : 최종훈 / 16일 : 전미영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김성하 / 설교번역:

4월 안내 및 봉사: 청년 목장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다하나 캠프 : 5월 30-31(토,주) @ Good Earth Village

*성서일과 Lectionary (제 15주)

행 2:14a, 22-32, 시 16, 벰전 1:3-9, 요 20:19-31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Senior Pastor) : 김경헌 목사 (213-357-7614)

예배순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고전 15:50-52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윤바울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21장 1-14절 ——— 인도자

설교 ——— 와서 아침을 먹어라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나룻배와 행인

나룻배와 행인 -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쏘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 갑니다.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입니다. 풍경과 이야기가 그려지는 시입니다. 어떤 이를 사랑하며 흠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임을 위해 기꺼이 나룻배가 되어 임이 원하시는 곳에 모시겠다고 합니다. 임은 가시겠지만 다시 임을 안을 날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요 며칠 기다림에 설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어머니께서 누님들과 저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게 되시어, 어머니를 5년 만에 뵙게 됩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약된 이별이 있기에 벌써 슬퍼지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참 행복인가 봅니다. 세례 요한이 오버랩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꿈꾸던 메시아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그는 버리지 않았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여쭙습니다. “오실 그 분이 당신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면 그는 자신이 날마다 낚아 쇠해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합니다. “당신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습니다.” 고백하던 세례 요한의 고백은 흠발로 나를 짓밟고 가도 당신만 영광 받으시다면 상관 없다는 마음이었죠. 이제 그만 오셔서 뒤죽 박죽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바로 잡고 새롭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도 그랬겠지요? 자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겠지만, 오실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낚아진 내 삶이 아깝지 않겠다던 감옥 속의 요한이 눈에 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풍경과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